

100 Years of BAUHAUS

바우하우스 품은 독일 도시를 가다

'현대 디자인의 뿌리'로 불리는 바우하우스가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단순하면서도 기능에 중심을 둔 현대의 디자인이 여기서 탄생했다. 독일관광청 초청으로 바우하우스의 혁명적인 생각이 투영된 공간이 있는 크레펠트, 에센, 프랑크푸르트를 돌아봤다.

글 · 사진 임동근 기자





에센 문화도시로 변신한 유럽 최대 탄광촌

에센은 135년간 2억4천만의 석탄을 생산한 유럽 최대의 탄광촌이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출페라인 탄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바우하우스 양식으로 건축된 출페라인 탄광 12번 갱도와 코크스 공장 등은 현재 복합 문화단지로 탈바꿈했다.

올해는 바우하우스(BAUHAUS) 창립 100주년이다. 국내에서 영화 '바우하우스'가 개봉했고, '바우하우스와 현대 생활'을 주제로 하는 전시회가 금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바우하우스가 태동한 독일에서는 올해 내내 관련 전시회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도대체 바우하우스는 무엇일까. 바우하우스는 1919년 설립돼 1933년 폐교될 때까지 지속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예술학교다. 이 학교는 20세기 건축과 디자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의 건축, 가구, 식기, 생활용품 등에 나타나는 기하학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 규격화된 건축 자재와 조립식 건물은 모두 바우하우스를 모태로 한다. 바우하우스 건축가와 예술가들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철골과 유리로 지은 빌딩, 조립식 주택과 주택단지, 현대식 주방, '락앤락'을 연상케 하는 유리 용기 등을 100년 전 이미 만들어

냈다. 모두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바우하우스의 철학에 따라 제작된 것들이다. 바우하우스는 '건축'을 뜻하는 바우(Bau)와 '집'을 의미하는 하우스(Haus)를 조합한 말로 '집을 짓는다'는 뜻이다. 초대 교장인 발터 그로피우스가 명명한 이름으로 그는 공예, 회화, 디자인 등을 통합한 건축을 추구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이들이 폐허를 딛고 더 나은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바우하우스에서는 위계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선생을 '마이스터'(명인), 학생을 '직공'이나 '도제'로 불렀다. 마이스터의 면면은 대단했다.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바실리 칸딘스키를 비롯해 전위 무대 미술가인 오스카 슈레머, 색채 전문가 요하네스 이텐, 현대 추상회화의 시조인 파울 클레, 판화가 라이오넬 파이닝거 등 당대 최고 예술가들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독일 에센 출페라인 탄광 전경 2 출페라인 탄광 모형 3 샤프트 12의 야외 풍경

이 교육을 선도했다. 이들은 예술, 공예, 기술, 건축 등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자유로운 예술가를 길러냈다. 바우하우스는 신고전주의 건축물을 선호한 히틀러가 집권한 직후인 1933년 4월 '퇴폐적'이란 이유로 폐교됐다. 하지만 마이스터와 학생들은 미국, 파리, 런던 등지로 망명해 바우하우스의 철학을 전 세계에 퍼뜨렸다.

바우하우스 철학 담긴 '샤프트 12'

독일 에센은 19~20세기 독일 경제발전을 이끈 루르 공업지대의 중심지였다. 이곳 출페라인 탄광의 역사는 인근 철강 도시에 석탄을 공급하기 위해 1847년 수직 갱도를 파며 시작됐다. 최대 8천 명의 노동자들은 매일 1만2천의 석탄을 생산했다. 많은 우리나라 광부가 일

했던 곳으로, 영화 '국제시장'에서 독일 탄광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출페라인 탄광은 1986년 공해 문제로 가동을 멈췄다. 그리고 탄광과 코크스 공장 등은 1990년대 들어 '변환을 통한 보존'(Preservation through conversion)을 모토로 복합 문화단지로 변신했다. 이어 2001년에는 산업유산으로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옛 탄광 건물과 루르 지방의 자연·역사·문화를 보여주는 루르박물관, 세계 최대 디자인박물관인 레드닷 디자인박물관, 수영장과 아이스링크, 식당과 카페, 호텔이 들어선 이곳에는 매년 15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출페라인 탄광은 크게 '샤프트 12', '코크스 공장', '샤프트 1/2/8'로 구성된다. 전체 면적은 100ha, 남겨진 건축물은 65개에 달한다.

견학은 1932년 마지막으로 건설된 갱도인 '샤프트 12'(12번째 갱도)에서 시작한다. 샤프트 12에는 예전 석탄 세척공장, 중앙제어실, 전기실, 보일러실, 고압·저압 압축실 등으로 사용됐던 건물들이 예술품처럼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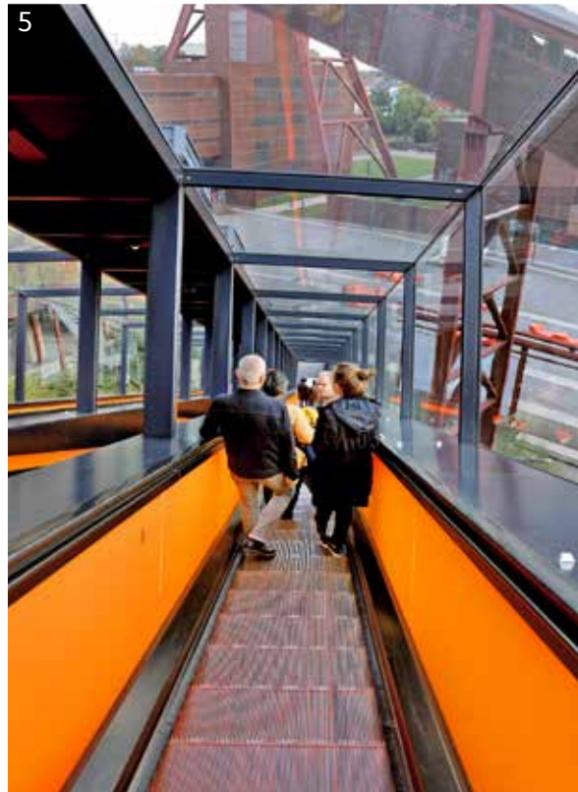
샤프트 12는 바우하우스의 마지막 교장이었던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제자인 프리츠 슈프와 마르틴 크레머가 설계했다. 바우하우스의 철학에 따라 건설된 20개의 건물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석탄 채굴을 위한 작업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건물들은 운영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탄광이란 평가를 받았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장난감 블록을 쌓아놓은 것 같은 붉은벽돌 건물이 정면과 좌·우측에 질서정연하게 들어서 있다. 정면에 있는 건물 위로는 갱도에서 나온 석탄을 끌어 올리는 장치인 권양탑이 A자로 솟아 있다. 에센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기능성과 뛰어난 조형미를 갖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창문이 가로로 길게 이어진 2층의 붉은벽돌 건물(옛 중앙제어실과 전기실)이 마주 보고 있다. 두 건물 사이 끝에는 하늘을 향해 뾰족한 건물(옛 보일러실)이 있다.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이 건물들을 보고 있으면 튼튼하게 잘 지은 유럽의 성채처럼 느껴진다. 옛 보일러실 건물은 현재 레드닷 디자인박물관으로 이용된다. 5개 층, 4천m²가 넘는 공간에는 자동차, 가구, 주방 기구, 공구, 조명 등 디자인이라면 꼭 봐야 할 작품 2천여 점이 전시돼 있다. 전시품은 모두 '디자인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레드닷 디자인상'을 받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 1 레드닷 디자인박물관으로 이용되는 옛 보일러실 건물
- 2, 3 레드닷 디자인박물관 내부 풍경
- 4 가이드 페터 로이터 씨가 작업공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 설명하고 있다.
- 5 옛 세척공장 건물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6 육중한 기계와 구조물로 가득한 옛 세척공장 내부
- 7 옛 세척공장 전망대에서 바라본 샤프트 12의 풍경
- 8 산업유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공간

권양탑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서면 출페라인에서 가장 큰 건물인 옛 세척공장 건물이 나타난다. 건물 보호를 위해 외부에 설치된 가파른 오렌지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4m 높이에 있는 출입구로 들어설 수 있다. 이 오렌지색 에스컬레이터를 비롯해 내부에 있는 루르박물관은 세계적인 건축가 렘 콜하스가 설계했다. 로비에서 방문자센터와 카페, 서점을 둘러본 후 계단을 이용해 건물 위쪽으로 이동했다. 계단에는 출페라인 탄광에 있는 각 건물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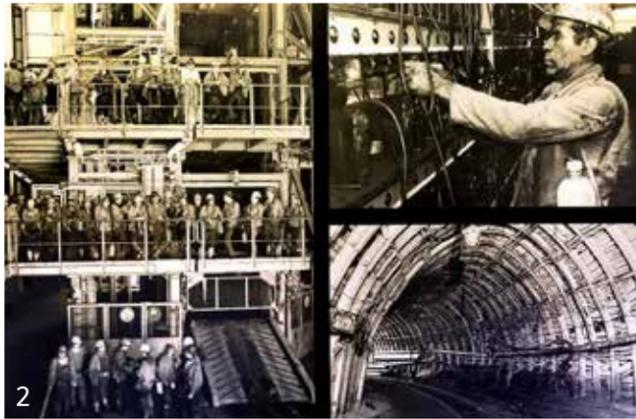
이 예술작품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공간과 산업유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멀티미디어로 보여주는 곳을 지나면 공장 내부로 이어진다.

그곳에는 세월의 무게가 더해져 빛이 바랜 육중한 기계와 구조물이 가득하다. 거대한 강철 용기, 톱니바퀴와 벨트, 파이프라인, 사다리꼴과 이동로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지나칠 수 없다. 방문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기계에서는 해당 작업공정을 보여주는 영상도 나온다.

계단을 더 올라 45m 지점은 전망대다. 권양탑과 주변의 건물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고, 코크스 공장이 시야에 들어온다. 건물 이외 빈 곳은 초록빛 싱그러움으로 채워졌다. 이곳이 검은 석탄가루 날리던 탄광이었나 싶다. 멀리 에센 시내도 보인다.



- 1 옛 코크스 공장에 들어선 '코크스-카페 & 식당'
- 2 출페라인 탄광의 한 건물 지하에는 옛 광부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이 전시돼 있다.
- 3 옛 코크스 공장 전경.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한다.



건물 뒤편으로 이동해 지하로 내려가자 옛 광부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전시관이 마련돼 있다. 석탄가루를 뒤집어쓴 채 작업하거나 쉬면서 음식을 먹는 광부들의 사진을 비롯해 착암기와 도끼, 삽 등 채굴 도구, 조명과 변기 등이 전시돼 있다. 아쉽게도 사진 속에서 한국인 광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박물관, 식당, 체육시설이 있는 복합문화지대

자작나무 싱그러운 숲길을 통과해 10여 분을 걸으면 1961년 바우하우스 양식으로 설계된 코크스 공장에 닿는다. 건물 한쪽에는 스파게티, 소시지 수프 등 지중해식 메뉴를 내는 '코크스-카페 & 식당'이 들어서 있다. 2층으로 오르자 전면 유리창을 통해 공장 안쪽이 들여다보인다. 공장 안쪽에서는 각종 영상물이 벽면과 기둥에 투사되고 있었다. 출페라인 탄광에는 고급 메뉴를 내는 '카지노 출페라인', 스낵·케이크·아이스크림을 파는 '카페 출페라인'도 있다.

식당 맞은편으로 걸음을 옮기자 코크스 공장의 외관이 눈 앞에 펼쳐진다. 기다랗게 뻗은 건물과 나란하게 들어선 높은 굴뚝, 각종 구조물이 물이 가득 담긴 수조에 투영돼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한다. 이곳은 겨울이면 길이 150m의 아이스링크로 변신한다. 식당 맞은편 건물 위쪽에는 실외 수영장이 있다. '샤프트 1/28' 구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 도예가 이영재 씨가 운영하는 마르가레텐호에(Margaretenhoeh) 도자기 공장도 있다. 우리나라 감성이 듬뿍 담긴 접시와 그릇, 주전자, 화

분, 꽃병 등 작품을 감상하고, 도자기 제작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최근에는 총 67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도 이 구역에 문을 열었다. 가이드 페터 로이터 씨는 "개인이 투자해 샤프트 1/28 구역에 호텔 문을 열었듯이 이 구역의 건물들은 앞으로 개인들의 투자를 받아 사무실, 식당과 카페, 교육과 이벤트를 위한 공간 등으로 변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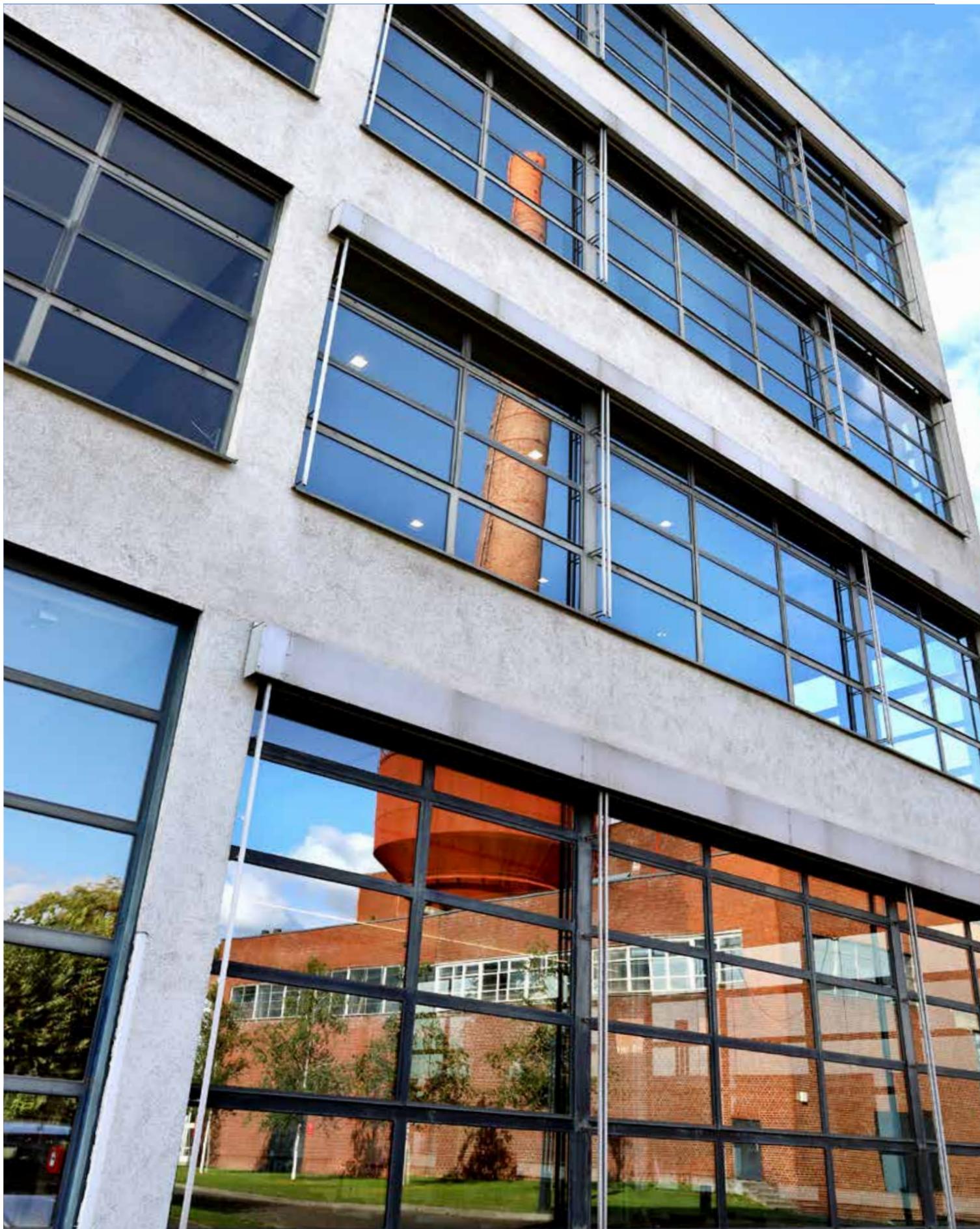
도심에서 만나는 흥미로운 건물들

에센 중앙역 남쪽에 있는 폴크방박물관에서는 바우하우스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시리즈로 열고 있다.

바우하우스 마이스터로 활동한 화가 '라이오넬 파이닝거'를 주제로 바우하우스의 초기를 엿보는 전시를 진행하고, 9월 초순까지는 '세계를 향한 무대'(Staging the World)를 주제로 1921년부터 1929년까지 바우하우스에서의 공연문화 수업 장면을 사진, 스케치, 그래픽으로 들여다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세 번째 전시는 바우하우스의 사진과 영화에 관한 것이다.

도시 남서쪽에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전원주택단지라고 할 수 있는 마르가레텐호에(Margarethenhoehe)가 있다. 독일 기업 크룹이 직원들을 위해 1909~1934년 조성한 주택단지로서 어비슷한 디자인의 현대적인 주택은 위생시설을 갖췄고, 정원이 있었다. 주민 복지를 위해 슈퍼마켓, 학교, 교회, 도서관도 들어섰다. 이곳은 한때 예술가들의 거주지로 이용되기도 했다. 에센은 바우하우스와 관련된 건축가와 예술가가 많이 활동했던 곳이다. 에센 도심을 거닐다 곳곳에서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창이 많은 붉은벽돌 건물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거대한 에센 시청사, 독특한 디자인의 구 유대교 회당, 마르크교회도 찾아볼 만하다.





크레펠트

현대 건축의 아이콘과 조우하다

독일 서부 라인강변에 있는 크레펠트는 '벨벳과 실크의 도시'로 불린다. 얼마 전까지도 독일 베타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다. 바우하우스를 마지막으로 이끌었던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이곳에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담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남겼다.

크레펠트에는 바우하우스 스타일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있다. 바로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바우하우스의 마지막 교장(1930~1933)을 지낸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1886~1969)의 작품들이다.

독일에서 출생해 어릴 때부터 건축 현장에서 일했던 미스 반 데어 로에는 15세에 제도사가 됐고 20세부터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했다. 그는 1927년 슈투트가르트 바이센호프 주거단지를 건축했고, 1929년에는 스페인 만국박람회에서 혁신적인 디자인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선보였다. 1950년대 미국 뉴욕에 들어서 '현대 사무실 건물의 교본'으로 평가받는 시그렘빌딩도 그의 작품이다. 강철과 유리를 사용해 단순하면서도 우아하게 짓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바우하우스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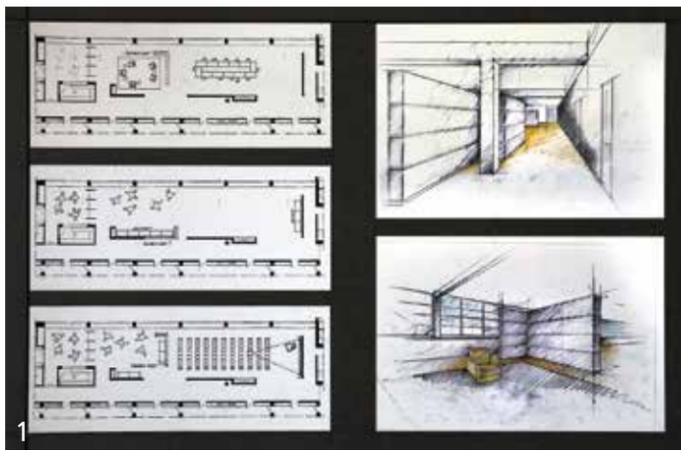
크레펠트 서쪽에는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유일하게 공장으로서 지은 건물이 있다. 1931년 건축된 이 실크직조공장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됐고 1970년대에 사무실 건물로 사용되기도 했다. 1999년 역사적인 건물로 지정돼 보존되면서 미스 반 데어 로에 스타일로 복원됐다. 2009년 이곳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건물과 그 이전의 건물을 비교하며 돌아볼 수 있는 '미스 반 데어 로에 파크'가 됐다.

공원으로 들어서면 커다란 굴뚝이 달린 붉은색 벽돌 건물 뒤편으로 ㄷ자 모양의 흰색 건물이 나타난다. 왼편은 4층, 나머지 7자 부분은 3층이다. 철골로 뼈대를 제작해 지은 건물은 원래 7자로 왼편이 2층, 나머지 부분은 1층이었다. 필요에



- 1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지은 유일한 공장건물의 1931년 당시 모습
- 2 미스 반 데어 로에 비즈니스 파크의 바우하우스 스타일 건물
- 3 바우하우스의 마지막 교장이었던 미스 반 데어 로에
- 4 바닥 측면을 높인 계단





1 공장건물에 전시된 내부 설계 도면 2 공장건물 내부
3 지붕이 뾰족한 창고 건물

4 방문객 심터인 루트비히 카페
5 창고 건물 지붕 한쪽 면에는 볼투명 유리가 달려 있다.

따라 직육면체 구조물을 덧붙이거나 쌓아 올리는 바우하우스 스타일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건물 전면을 가득 채운 유리창, 적갈색 벽들로 치장한 계단과 계단 바닥의 측면을 살짝 높인 구조도 볼거리다.

이 건물 옆으로는 철골 구조의 창고가 있다. 일반적인 바우하우스 건물과 달리 지붕이 뾰족한데 내부에서 보면 지붕의 한쪽 경사면을 볼투명 유리로 채웠다. 햇빛이 들어와 작업하기 좋은 밝기를 제공하고 실내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계다. 현재 쓸모를 다한 공장은 비어 있다. 미스 반 데어 로에 비즈니스 파크의 야나나 씨는 “현재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지은 건물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사무실, 식당, 공연장, 운동 공간 등을 갖춘 복합공간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우스 랑게와 하우스 에스터

크레펠트 북쪽에는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지역 실크직조업자의 의뢰로 1928~1930년 지은 중상류층 2층 주택인 하우스 랑게(Haus Lange)와 하우스 에스터(Haus Esters)가 나란히 서 있다. 이름 그대로 랑게 씨와 에스터 씨의 집이다.



외관을 보면 서로 다른 직육면체 블록 3개를 옆으로 붙여놓은 듯한 모습이다. 지붕은 평평하고 외벽은 어두운 붉은 벽돌을 쌓아 만들었다.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당시 이런 형태의 집은 그야말로 파격이었다.

하우스 랑게 맞은편에는 1930년대의 전형적인 가옥이 서 있어 비교해 볼 수 있다. 뾰족한 지붕에 화려한 장식, 작은 창문 등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설계한 집과는 완전히 다르다. 아돌프 히틀러는 지붕이 평평한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건물이 독일답지 않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실내로 들어서면 정면과 오른쪽에 나 있는 커다란 창을 통해 주변 풍광이 시원스럽게 들어온다. 이렇게 큰 창문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철골로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창문은 180도로 열리는 경첩을 달아 활짝 열 수 있도록 했다. 미스 반 데어 로에는 건물 외관에 더 많은 유리를 사용하고 싶어했지만 개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뢰인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건물 뒤편의 발코니나 테라스에 서면 초록빛 풍경이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1층 뒷문을 열고 나가면 테라스가 이어지고 계단을 내려서면 바로 정원이다. 정원에는 잔디밭과 커다란 나무가



1 하우스 에스터 외관 2 하우스 랑게의 2층 방 3, 5 커다란 창문을 통해 바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하우스 랑게 1층



4 바우하우스 관련 전시를 준비 중인 하우스 에스터 6 미술관으로 꾸며진 하우스 랑게 1층



7 우리나라 팔각정을 떠올리게 하는 크레펠트 파빌리온
8 크레펠트 파빌리온에서 바우하우스 관련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식재돼 있어 초록빛 싱그러운 공원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날씨 좋은 날 샌드위치만 들고 나오면 바로 피크닉인 셈이다. 집의 안팎이 구분되지 않고 건물과 자연이 소통하는 집을 짓고 싶어한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생각이 담긴 듯한 모습이다. 이 건물들은 '현대 건축의 아이콘'으로 여겨진다.

하우스 랑게는 1955년, 하우스 에스터는 1981년 크레펠트 시에 기증됐고 현재 현대미술품 전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내년 1월 26일까지 이곳에서는 바우하우스 100주년을 맞아 '삶을 위한 대안(Alternatives for Living)'을 주제로 전시회가 개최된다.

크레펠트에서 만나는 바우하우스 100년

하우스 랑게에서 동쪽으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카이저공원 잔디밭에는 들어가 볼 수 있는 조형물인 '크레펠트 파빌리온'이 들어서 있다. 독일 현대 조각가 토마스 쉬테가 나무로 제작한 것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팔각정을 연상케 한다. 나무로 만든 팔각의 벽면 위로 철관을 씌운 팔각지붕을 얹었는데 지름이 15m에 이른다. 크레펠트 파빌리온에서는 현재 '바우하우스와 실크산업'을 주제로 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내부는 7개 칸으로 나뉘어 있는데 칸마다 바우하우스와 관련된 영상과 사진을 볼 수 있다. 오디오 가이드를 쓸 수 있지만 어렵게도 들어만 제공된다.

발터 그로피우스, 하네스 마이어, 미스 반 데어 로에 등 바우하우스 교장들을 비롯해 당시 마이스터와 학생들을 사진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이 만든 다양한 실험적인 작품과 건축물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전시는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크레펠트 파빌리온 앞으로는 평화로운 풍광의 작은 호수가 펼쳐져 관람 후 편안하게 휴식하며 감상할 수 있다. 도심에 있는 카이저 빌헬름 박물관에서는 칸딘스키, 클레, 파이닝거, 요제프 알버스, 프리츠 빙터 등 바우하우스 마이스터와 학생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를 내년 4월까지 연다.



프랑크푸르트

현대 건축과 생활방식을 만든다

독일 경제·금융·교통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는 1920년대 새로운 건축과 디자인의 주 무대였다. 사회개혁 프로젝트인 '뉴 프랑크푸르트'는 사람들에게 현재까지 이어지는 혁신적인 주거 문화와 생활 방식을 선물했다.



- 1 고층빌딩과 옛 건물이 뒤섞인 풍경의 프랑크푸르트
- 2 에른스트 마이가 설계한 프라운하임 주택단지
- 3 흑백 사진 속 에른스트 마이
- 4, 5 에른스트 마이 건본주택 2층의 침실과 서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크푸르트의 인구는 전쟁 난민의 유입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주택은 턱없이 부족했고 주민의 생활 공간은 무척 비위생적이었다. 당시 루트비히 란트만 프랑크푸르트 시장, 도시계획국장이자 건축가였던 에른스트 마이(1886~1970) 등은 1925년부터 5년간 주택 1만2천여 채를 건설하는 도시계획프로그램인 '뉴 프랑크푸르트'를 고안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순히 주택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미적·문화적·사회적 이상에 기반해 프랑크푸르트를 개조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바우하우스와 함께 20세기 건축·디자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마이는 위생적이고 값싼 집만을 구상하지 않았다. 좋은 생활 조건에서 현대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녹지가 있는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주택단지를 목표로 했다. 그가

지은 주택은 초록빛 정원, 깨끗한 욕실, 현대식 주방 등을 갖췄다. 그는 또한 건축의 기능적인 측면에만 집중하지 않고 건축, 산업디자인, 그래픽 분야의 디자이너들과 협력했다. 이 중 오스트리아 최초 여성 건축가 마가레테 슈테-리호츠키가 설계한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단연 돋보인다. **지금도 뛰어난 100년 전 주택** 프랑크푸르트 북쪽 프라운하임에 있는 에른스트 마이 하우스에 가면 마이가 설계한 주택과 슈테-리호츠키가 설계한 부엌을 직접 볼 수 있다. 주택단지 하나는 2층 아파트 형태로, 1가구가 1층과 2층을 사용하는 구조다. 동과 동 사이는 집의 폭에 맞춘 개인 정원이 채우고 있다. 정원수가 울타리 역할을 한다. 1층에는 거실과 부엌, 2층에는 침실과 욕실이 있다.



4



2



3



4

- 1 참나무로 제작한 밀가루 보관용 통
- 2 선반을 꺼내 조리한 음식이나 그릇을 놓을 수 있게 설계한 싱크대
- 3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난간
- 4 크기가 변형되는 접이식 식탁
- 5 프랑크푸르트 부엌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재료 준비, 조리, 식탁 세팅 등 주방에서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식자재를 보관한 수납장 옆에 전기레인지와 오븐을 설치하고, 뒤편에는 싱크대와 식기 건조대를 배치했다.

부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부를 위해 창 쪽에는 휴식할 수 있는 탁자와 의자를 놓았다. 음식을 나르기 위해 거실로 바로 연결되는 문도 따로 뒀다. 조리된 음식은 열차에서 사용하는 운반 도구로 날랐다고 한다.

수납장 중간에 있는 손잡이가 달린 식자재 보관용 통도 눈에 띈다. 반죽, 쌀, 밀, 보리, 빵가루, 귀리, 마카로니, 콩 등 음식 재료를 쉽게 꺼내 쓸 수 있게 구분해 놓은 장소다. 맨 오른쪽 밀가루 보관용 통은 벌레를 막기 위해 참나무로 제작했고 나머지는 금속으로 만들었다. 보관용 통 위치는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맞췄다고 한다.

에른스트 마이 하우스의 오스카 웅거 씨는 “열차의 주방처럼 작은 공간에 모든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며 “주부가 가장 짧은 거리를 움직이며 조리할 수 있게 주방 시설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곳은 독일 최초의 완전 전기 주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레인지 옆 거치대에 걸쳐 사용하는 벽걸이 다림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접이식 탁자,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난간, 오렌지색 옷장, 바우하우스 스타일 전등, 모듈형 용기도 볼거리다.

유럽중앙은행으로 변모한 옛 청과물 도매시장

도심 동쪽 마인강 북쪽에 있는 옛 청과물 도매시장 건물은 에른스트 마이와 함께 뉴 프랑크푸르트 프로젝트를 주도한 건축가 마르틴 엘세서(1884~1957)가 1928년 세운 건물이다. 길이 220m, 너비 50m, 높이 17~23m의 대칭 구조 붉은벽돌 건물로 90여년이 지난 지금도 세련된 느낌이 물씬 풍긴다.

건축 당시 홀의 면적은 1만3천㎡에 달했고 마구간 130개가 있을 정도로 규모가 엄청났다. 당시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의 군사시설로 사용되며 지하에 유대인이 감금되기도 했다.

이 건물은 2014년 바로 뒤편에 180m 높이로 들어선 유럽중앙은행과 연결돼 통합됐고, 청과물 도매시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지금 붉은색 건물은 유리로 뒤덮인 유럽중앙은행 빌딩과 어우러지며 독특한 경관을 선사하고 있다.

도심 북서쪽에 있는 괴테대학교(프랑크푸르트대학교) 웨스트엔드 캠퍼스에는 ‘유럽의 펜타곤’이라 불리는 IG 파르벤 빌딩이 있다. 이 건물은 건축가 한스 펠치히(1869~1936)가 1928년 철과 석재를 사용해 지은 건물이다.

거대한 성채를 닮은 이 건물은 팔을 뒤쪽으로 둥그렇게 펼친듯한 모습이다. 자세히 보면 층이 높아질수록 창이 작아진다. 중앙 정문



6

6 새로 지은 유럽중앙은행과 결합한 옛 청과물 도매시장 건물
7 웅장한 성채를 연상시키는 괴테대학교 IG 파르벤 빌딩

으로 들어서면 나타나는 원형 로비는 상부에 설치한 창문을 통해 자연광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설계됐다. 바닥과 벽, 천장은 모두 격자무늬로 꾸며졌다. 로비 뒤편으로는 둥그런 벽면을 가득 채운 창문을 통해 들어온 자연광이 실내를 밝히는 카페가 마련돼 있다. 건물을 벗어나면 언뜻이 있는 커다란 정원이 펼쳐지고, 언뜻 뒤편 언덕에는 IG 파르벤 빌딩과 같은 양식으로 건축한 건물이 들어서 있다. ⑦



5



7